

익산시, 청년 취업 적극 돕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20명 모집… 5주마다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밀착상담·멘토링·취업역량 교육 등… 특별한 프로그램 제공 ‘큰 호응’

익산시가 취업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중·장기 기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39세 청년이며,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총 12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참여자는 5주마다 참여 수당 50만원을 받는다.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창업 시 최대 70만원의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중기반은 최대 220만원, 장기반은 최대 35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을 수료한 청년



145명 중 131명이 취업·창업·직업훈련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는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상담, 멘토링과 더불어 필라테스, 요리 실습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전담인 12일 지역 청년지원기관 14곳이 참여한 협력 회의를 통해 참여 청년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주민 숙원 ‘난포교 재가설’ 문제 해결 발판 마련 공로 인정

익산시가 주민 숙원이었던 ‘난포교 재가설’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에서 ‘난포교 재가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난포교는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와 성당면 성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6호선의 다리다.

설치된 지 40여 년이 지나 노후한 상태인데다 2023년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까지 발생해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교량 재설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

재를 요청했고, 중재 과정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량 재설치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중재회의를 거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난포교 재가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올해까지 사업 추진과 비용 분담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도 교량 재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업무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와 유관기관 덕분에”이라며 “난포교 재가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연안어업 구조조정’ 나선다

연안 어선 감척사업 진행… 어업 경쟁력 강화·어업인 소득증대 목표

군산시가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안어업 구조 조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일단 어업의 허가 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은 어선부터 감척해 어업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도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올해 사업 예산으로 33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0억원보다 약 세 배 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하였으나, 올해는 시비 부담 없이 국비, 도비로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통해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



과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9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군산시가 예산편성 등 과정에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9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은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23명), 읍면동 추천(27명)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10명)의 방법으로 선발된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7

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시의 업무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시민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는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 진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4세 이상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영업소의 분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며 모집 기간은 14일부터 31일까지이다.

참여 희망 시민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5층)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kjzz7931@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gunsan.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기업 지원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애로 해결… 28일까지 모집

군산시와 전북군산소부장지원센터는 ‘스마트그린산단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이동수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역량 고도화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및 연계산단 입주 기업들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 원천기술 확보 △혁신제품 개발역량 강화 △기술 내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국가산단 등에 사업장을 보유한 관련 분야 기업이며, 선정되면 업종 고도화와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기술개발, 제조공정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OPEN-LAB(개방형 실험실) 사업 △

전장품 성능평가 △혁신제품 사업화 △제품 고급화 △ONE-POINT 상당 △친환경차(xEV) 특화 제조공정 개선 등 총 6개 분야 총 51건으로, 시는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전북군산소부장지원센터 누리집을(www.jumpcenter.org) 통해 상세 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군산시 신성장산업과(☎063-454-2762) 또는 전북군산 소부장 지원센터(☎063-469-1763)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남중동 ‘생활 속 어울림 플랫폼’ 준공

익산시 남중동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편히 머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앞으로 이곳은 지역의 활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시는 13일 남중동 ‘생활 속 어울림 플랫폼’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생활속 어울림플랫폼은 2020년부터 추진된 남중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건물은 연면적 815㎡, 지상 3층 규모이며,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복지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층에는 초등학교를 위한 방과후 학습공간 ‘더봄’을 마련했고, 3층은 더봄의 운영사무실과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아어라운지’로 꾸며졌다.

정현을 시장은 “더봄이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배움의 공간으로, 주민 문화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임시 건어 매장 운영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 건어 매장 신축을 위해 14일부터 임시 건어 매장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매장은 ‘수산물종합센터 노후 건어 매장 신축’ 사업을 앞두고 상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신축 이전 시 폐기되었던 노후화된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신축 사업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지역경관에 적합한 건축물 조성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센터 인근 광장에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